

삼성경제연구 “한국농업 ‘사양화’ ‘산업화’ 갈림길”

한국농업이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영을 통해 산업화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개방시대 한국농업의 선택: 농업경영’이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재개되면 쌀을 포함한 전 농산물시장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고, 쌀 관세화 유예조치가 끝나는 2014년 이후에는 쌀시장도 완전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1998년 이후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는 소득보전의 성격이 강했고 시장개방에 대한 불만해소에 집중돼 결과적으로 농업이 향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면서 “현재 한국 농업은 유통환경 개선이나 경기정리 등 일부 생산기반은 개선됐지만, 농민의 소득여건 등 환경개선은 미미한 수준이고 경쟁력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농기업가’ 키워야 개방화 시대 생존

연구소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농업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2.6%에서 2017년에는 1.2%로 축소되고 경기면적도 지난해 181만ha에서 2017년 161만ha로 감소하는 등 위상이 크게 약화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소는 “하지만 기존의 영세 농, 고령농에서 농기업, 농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경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업 환경을 가진 네덜란드는 낙농에서

만들기에 나설 것인지 선택할 시점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는 “개방화와 고령화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농업부문에 구조조정이 부진할 경우 강력한 보호의 틀 속에 안주했던 한국농업은 더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기존의 영세 농, 고령농에서 농기업, 농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경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업 환경을 가진 네덜란드는 낙농에서

화해, 양돈 등으로 생산구조를 전환하고 농업교육의 인프라 구축 등 일련의 구조조정을 통해 농가소득이 한국의 2.4배, 농산물 수출액은 32배에 달하는 세계 2~3위의 농업 선진국으로 도약했다고 연구소는 고대했다.

연구소는 농업이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농업경영이 확산돼야 하는데, 농업경영 확산의 두 축은 외국산 저가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품질과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상품차별화’와 경영자적 자질을 갖춘 ‘농기업가 양성’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정부가 농업정책 기조를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시장지향적·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기업은 기업농과 개인농의 중간 형태인 혼합형 농업회사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 자동차 정비요금 최고 7배차

전국주부교실 광주시지부 26개업소 실태조사

엔진 오일, 타이밍 벨트, 브레이크 라이닝 등 운전자들이 자주 교체하는 일부 자동차 소모품 정비 가격이 업소에 따라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사)전국주부교실 광주시지부(회장 박영희·이하 주부교실)가 지난 7~11일까지 광주 시내 26개 정비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 정비 가격 및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16일 주부교실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가격차를 보인

부품은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대우 라세티의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5만원으로 무려 7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현대 소나타의 경우도 최저 3만 8천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또 쌍용 렉스턴의 자동변속기 오일 정비가 최저 2만8천원에서 최고 13만 6천원으로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리엔티 장수성 부성장 등 300여명의 한·중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난징금호타이어 TBR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기존 금호타이어 난징 승용차용(PCR)타이어 공장에서는 약 27km 떨어진 난징고신기술산업개발구 내 9만여평 부지에 약 9천900만불을 투

정비소의 부품별 평균 정비 가격은 ▲엔진오일 2만8천원 ▲자동변속기 오일 6만2천200원 ▲타이밍 벨트 21만원 ▲에어컨 냉매 충전 4만9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현대 자동차 등 제조업체 지정 정비소의 가격은 좀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부교실 담당자는 “대부분의 정비업소가 부품과 공임 가격에 대한 견적서와 내역서 샘플 공개를 꺼려했다”며 “특히 부품과 공임비를 분리하지 않고 합쳐서 계산하고 있는 정비업소가 많아 소비자에게 제대로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금호, 中에 트럭·버스용 타이어 공장 착공

내년 완공·年 30만개 생산

금호타이어(대표 오세철)가 중국 난징에 트럭·버스용(TBR·Truck Bus Radial) 전용 타이어 공장(조감도)을 설립한다.

이 공장은 중국 난징·헨진·창춘지역의 승용차용(PCR·Passenger Car Radial)타이어 공장에 이어 중국에 설립하는 네번째 공장이다. 트럭·버스용(TBR)타이어를 전문으로 생산한다.

금호타이어는 16일 중국 난징시에 위치한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오세철 금호타이어 사장, 튀썬 난징시 서기, 리엔티 장수성 부성장 등 300여명의 한·중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난징금호타이어 TBR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기존 금호타이어 난징 승용차용(PCR)타이어 공장에서는 약 27km 떨어진 난징고신기술산업개발구 내 9만여평 부지에 약 9천900만불을 투



자, 연간 30만개(개)를 생산하며 2008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향후 중국 내 트럭·버스용 타이어 시장의 성장을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최신 설비 설치를 통한 고품질의 타이어를 생산, 중국 내수시장과 신차용 타이어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디지털가전협 창립

“기술협력 강화”

광주지역 프리미엄급 디지털 생활가전 중소기업들이 16일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프리미엄급 디지털 생활가전 기업대표 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을 들어갔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기·전자 관련 7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주)나영산업 고정주 대표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고 회장은 이날 “부가가치가 높은 디지털 가전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원사간 기술협력 및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김강진 본부장)는 정부가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디지털 가전산업을 위해 아이টে를 선정하고 기업과 접촉해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기술지원 및 장비지원 등으로 자생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ilee@



광주에 문연 슈퍼슈퍼마켓

16일 문을 연 롯데슈퍼 광주 문흥점이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롯데슈퍼는 이날 문흥점을 비롯해 광주 양산점, 목포 하당점 등 호남지역에 5개 점포를 개점하고 본격적인 SSM(슈퍼슈퍼마켓) 시대를 열었다. 롯데슈퍼는 빅마트로부터 인수한 나머지 9개점도 리모델링이 끝나는 대로 문을 열 계획이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4월 취업자 27만8천명...실업률 3.4%

정부, 30만명 일자리 창출 8개월 연속 미달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가 27만8천명을 기록,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인 30만명에는 또 미달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수는 2천35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8천명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3.4%를 기록했다. 4월의 취업자 증가수는 월별 기준으로 올해들어 가장 많았지만 정부 목표치 30만명에는 8개월 연

속 미달한 것이다.

전체 고용률은 60.2%로 올해들어 처음 60%선을 넘어서며 지난해 4월에 비해 0.1%포인트가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취업자수가 작년 동월 대비 각각 6.7%, 6.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15~19세 연령대(-6.0%)와 20대(-2.0%), 30대(-2.4%) 등 젊은 층에서는 취업자수가 모두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분야에서 취업자수가 32만1천명(4.4%),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8만2천명(3.5%)씩 늘어 호조를 보였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각각 6만5천명, 6만6천명씩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경제활동인구는 2천433만7천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24만9천명(1.0%) 증가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2.3%로 변동이 없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1% 증가한 1천475만5천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통학(3.7%), 가사(2.2%) 보다는 ‘쉬었다’(4.3%)고 답한 경우가 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최경호기자 choice@

주류 도매상 33곳

탈세혐의 세무조사

국세청이 무자료 거래 혐의가 있는 주류도매상과 이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톨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형업소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주류 도매상 33곳에 대해 17일부터 일제 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는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별로 20~40일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주류 매입액이 과다하게 많은 유형업소의 매입자료를 분석, 이들에게 술을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됐다.

이들 도매상은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대형 유형업소에는 술을 공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탈세를 부추기고 포장마차, 노래방 등 세원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술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



전남 동부권 중소기업인 간담회

우리는행 중소기업본부는 16일 제19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순천 로얄관광호텔에서 전남동부권 주요 중소기업 대표 20명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송기진 부행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과반수 우리는행 비즈니스클럽 회장, 조용기 호남본부장, 광양·여천·여수·순천지점장이 배석해 이들 중소기업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열악한 전남지역 경제 실상을 감안해 저리의 자금 지원과 자금의 적기 지원 등을 요구했고, 송 부행장은 “전남지역 경제 발전과 거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싱그러운 새 봄을 맞아 모디쉬갤러리가 신축 오픈이벤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디쉬갤러리 Open Sale

MODISH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30% 오피스 침실세트
장롱, 화장대, 침대(메트리스별도), 협탁
몽블랑 2+2 가족소파 (5조한정)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족소파 (5조한정) 3,250,000 → 1,600,000원
황옥 4인 대리석식탁 (5조한정) 1,300,000 → 690,000원
엔틱전환기 (선착순 20명) → 39,000원

미가엘 카실장식세트

Open기념 황토침실대, 정수운동침대 한정판매

HS-6720 비토 1,990,000원 (5조한정판매)
JSD-비토Q 1,470,000원 (5조한정판매)

미가엘 5단서랍장, 아시아 2.2 소파, 미가엘 화장대, 오메가 대리석 식탁세트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0621252-3001~2 / 금호월드 3층 ☎0621350-8764

(株) 행복출발은

창사이래 10년동안 오직 재혼만 전문으로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이제는 국내 최대 재혼 회원을 보유하고 최고 재혼교제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 집중 조명 되고있는 국내 대표 재혼정보회사입니다.

회원수 1위 한국대표 재혼정보회사

초대졸 커리어매니저 0명 모집

다양한 직업의 노블레스 여성회원 다수보유

호남지역총괄 (株) 행복출발 (062) 527-3388

인터넷 주소창에 **주식(D) 마들닷컴 >90** 을 치세요